

영토와 영유권분쟁 그리고 독도

22537835 청소년상담복지학과 이채은

| 목차

01 독도 일반적인 정보

02 독도 역사적 배경

03 독도 영유권 분쟁

04 독도 문화, 교육적 의미

05 독도 수호 노력과 시민 활동

| 발표 목적과 중요성

발표 목적

-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
-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을 갖추기 위해
- 독도를 둘러싼 국제적 쟁점과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영토 주권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중요성

역사적 중요성: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문헌과 지도를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

지리적 중요성: 동해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해양 영토의 기준점이 되며, 군사·안보적으로도 전략적 위치

경제적 가치: 풍부한 어족 자원과 해양자원(천연가스, 희귀금속 등)의 가능성이 있어 경제적 잠재력이 큼

문화적 상징성: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적 상처와 자주권의 상징

| 독도 문제의 개요

독도의 위치: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동해상의 섬으로,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대한민국은 1954년부터 독도에 경비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효 지배 중
일본의 영유권 주장: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 이로 인해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발생
주요 쟁점: 역사적 자료 해석의 차이 국제법적 해석의 차이

<독도 관련 주요 역사 연표>

연도사건

- 512년 신라 이사부, 우산국(울릉도·독도 포함) 정벌 → 독도 한국 영토 편입
-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우산도와 무릉도는 본래 하나의 섬, 울진현에서 볼 수 있음" 기록
- 1696년 안용복 사건 →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 인정
- 1905년 일본, 러일전쟁 중 독도를 몰래 시마네현에 편입 (강제 점령 시도)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SCAPIN 제677호 등)
- 1954년 대한민국, 독도에 경비대 주둔 시작 → 실효 지배 강화
- 현재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한 완전한 주권 행사 중 / 일본은 여전히 영유권 주장

| 독도의 일반적인 정보

- 독도의 지리적 위치

독도는 북위 37°14' | 동경 131°52'에 위치하며, 대한민국의 동쪽 끝 영토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독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약 87.4km, 일본 오키섬에서는 157.5km 떨어진 곳에 있다.



| 독도의 일반적인 정보

- 독도의 행정구역

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해 있으며, 울릉도와 함께 행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적도상에도 독도는 대한민국 국토로 등록되어 있고, 우편번호는 40240, 주민등록 주소도 존재합니다

| 독도의 일반적인 정보

-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주요 섬과 약 89개의 부속 암초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독도는 생태적·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커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독도는 약 460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암 섬으로, 침식과 풍화가 지속되고 있다.

- 독도는 여러 종류의 철새들이 찾는 주요 서식지이자 중간 기착지로 기능한다.
- 독도의 해안과 암석은 철새들에게 적합한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조류가 철새들에게 먹이와 서식지 제공.
- 독도의 생물 다양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자연 보호 구역으로서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 독도의 일반적인 정보

- 독도의 기후 및 생태계

독도는 해양성 기후로 여름은 습하고 겨울은 강풍과 눈이 많다.
연중 안개와 바람이 자주 발생한다.

독도에는 약 80여 종의 식물과 20여 종의 조류, 해양 생물 100여 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도 발견된다.

독도는 기후는 연평균 기온 12도 내외, 강수량은 1,300mm 이상,
다양한 조류와 풍부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이다.

| 독도에 서식하는 조류



01 갯가리새

독도의 대표적인 번식 조류로, 여름철 수천 마리가 무리를 지어 둥지를 튼다.

독도의 절벽과 바위틈은 갯가리새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국내에 서식하는 가리새들 중 가장 흔한 종류로 한국에서 가리새라 하면 보통 갯가리새를 말할 정도이다.

다른 가리새류는 겨울철새이다.

독도에도 많으며, 한국해양대학교의 교조이다. 그래서 교양 중에 독도와 관련된 교양이 많다.

| 독도에 서식하는 조류

02 습새

크기가 작고 몸이 검은색 계열이며, 주로 밤에 활동하는 바닷새의 일종이다.
야행성이라 낮에는 숨고, 밤에 활동해 사람들에게는 자주 관찰되지 않는다.
독도의 고립된 지형 덕분에 사람의 간섭 없이 안정적인 번식지를 형성하고 있다.



| 독도에 서식하는 조류

03 바다제비



희귀한 바닷새로, 작은 체구에 비해 날개가 길고 날렵하다.

독도의 해안 동굴이나 절벽 틈에 집단 번식지를 이루며 보호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도는 천적이 거의 없고, 사람이 거의 접근하지 않아 이 새에게 매우 이상적인 번식지로 평가된다.

번식기는 보통 여름~가을, 바위 틈이나 구멍 속에 둥지를 틀고, 한 번에 한 개의 알을 낳아 부부가 번갈아 품는다.

| 독도 주변 해양 생물

01 흑돔

독도, 울릉도, 제주도 등 수심 깊고 바위가 많은 해역에 서식
독도 주변의 암반 지형과 조류 환경이 흑돔 서식에 적합

흑돔은 독도 주변 생태계의 대표적인 대형 어종으로,
→ 생태적 다양성과 독도의 해양 환경이 건강하다는 지표
→ 경제적 가치도 높아 수산자원 관리의 중요성 강조 가능



| 독도 주변 해양 생물



02 우럭(조피볼락)

특징: 바위 틈에 숨어 사는 대표적인 암초성 어류

서식: 독도 주변 암반 해역에서 흔하게 발견됨

→ 우럭은 독도 인근 어민들이 실제로 많이 어획하는 물고기로, 지역 수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독도 주변 해양 생물



03 미역

- 특징: 해조류의 일종으로, 바위에 붙어 자라며 독도 주변에 군락을 이룸
 - 서식: 수온이 비교적 낮고 물살이 센 독도 연안에서 잘 자람
- 미역은 해양 생태계의 1차 생산자로, 다양한 해양 생물의 먹이와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독도의 일반적인 정보

- 독도의 해양 자원

독도 주변 해역은 풍부한 어족 자원(문어, 독도새우, 오징어 등)과 해조류(미역, 다시마)가 자생한다. 또한, 해저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천연가스, 망간단괴 등의 해양 광물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크며, 미래 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 독도의 일반적인 정보

- 독도의 생태적 가치

독도는 희귀 조류(괭이갈매기, 바다제비)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해양 생태계 연구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한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생태적, 학술적 보호 가치가 높은 섬이다.

| 독도의 일반적인 정보

- 독도 주변 해양 영토

독도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에 기준이 되는 전략적 해양 영토이다. 이 지역은 어업권, 자원 개발, 해양 통항권 등과 관련해 국가 주권이 작동하는 핵심 구역이다. 독도가 없다면 동해상의 해양 영토 주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 독도의 일반적인 정보

- 독도에 거주하는 사람들

독도에는 현재 1명의 주민(김신열 씨, 고 김성도 씨 부인)이 공식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비대원, 기상청 직원, 해양경찰 등이 교대 근무를 하며 실질적인 상주 인원이 존재한다.
- 이들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실질적으로 상징하고 지키는 존재이다.



| 독도의 일반적인 정보

- 독도의 시설 및 인프라

독도에는 독도경비대 초소, 헬기장, 접안시설, 기상관측소, 등대, 해양조사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전기(태양광)와 해수 담수화 시설 등 기본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 자립적 운영이 가능함.

이러한 시설들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 독도의 역사적 배경

- 삼국시대의 독도 인식



512 우산국 복속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삼국시대 사람들은 독도를 울릉도 근처의 부속 섬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우리 땅으로서의 인식의 시작점이다.

| 독도의 역사적 배경

- 고려시대 독도 관련 기록

<고려사의 기록>

고려 말에 편찬된 고려사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두 섬은 서로 가까워 맑은 날엔 바라볼 수 있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고려의 영토로 명확히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헌적 근거이다.

고려는 해마다 울릉도와 우산도에 도적이냐 왜구가 나타나는지 관리를 파견해 점검했다.

조운선(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 항로의 방어 차원에서도 동해 해역을 주시하며, 영토 보호에 힘쓴 기록도 있다.

| 독도의 역사적 배경

- 조선시대 독도 관련 문서

세종실록지리지 (1454)

울진현 조항에

“우산도와 무릉도는 본래 하나의 섬인데,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가 울진현 관할로 명확히 기록됨.

→ 독도가 행정 구역상 조선 영토로 분명히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



세종실록 지리지

| 독도의 역사적 배경

- 조선시대 독도 관련 문서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조선 중기의 종합 지리서로, 지방 행정과 지리, 특산물 등을 정리한 국가 지침서

강원도 울진현 항목에

“우산과 무릉은 모두 울진현 동쪽 바다에 있는 섬이다.”

→ 세종실록지리지와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조선 중기까지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했다는 증거

| 독도의 역사적 배경

- 조선시대 독도 관련 문서

숙종실록(1696)

안용복 사건 기록 포함



숙종실록

안용복은 일본 어민의 불법 어업에 항의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라고 주장함

이 사건 이후 조선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더욱 확고히 인식

| 독도의 역사적 배경

- 조선시대 독도 관련 문서

동국문헌비고(1770)

조선 후기 문헌으로, 역대 문서와 제도들을 정리한 백과사전식 자료

“우산도는 울릉도 외에 있는 섬으로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라고 기록

→ 일본이 독도를 송도라 부른다는 사실까지 인식하고 있었으며,

→ 독도를 자국 영토로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줌

| 독도의 역사적 배경

- 조선시대 독도 관련 문서

동래부지, 팔도총도, 해동지도 등 고지도

많은 조선시대 고지도에서 울릉도 옆에 우산도(독도)를 표기

→ 독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로 지리적으로도 명확히 인식되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

| 독도의 역사적 배경

- 조선후기 독도인식과 일본의 침탈 시도

조선 후기의 독도 인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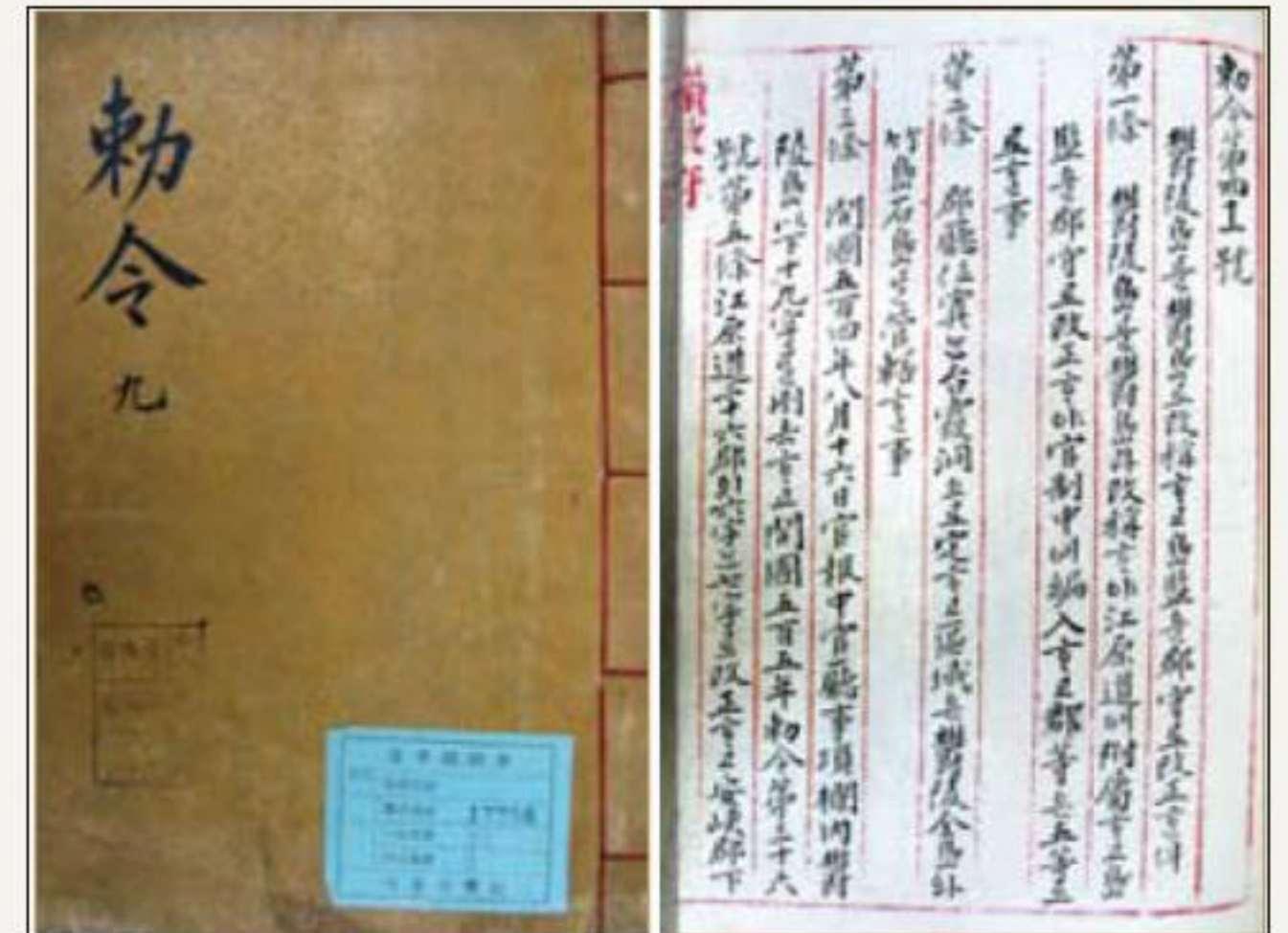
17세기 후반~18세기 초,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일본 어민들이 무단으로 침입해 어업 활동을 시작함.
1693년, 울릉도에서 조업 중이던 조선 어민 안용복과 박어둔이 일본 쓰시마 어민들에게 납치됨.
안용복은 두 차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김.

조선 정부는 이후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유지하면서도 경계를 강화했고,
→ 속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등 공식 문서에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반복적으로 명시함.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 (19세기 말~20세기 초)

19세기 후반,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지화할 준비 과정에서 해양 전략 거점으로 독도에 주목함.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죽도편입' 공고)하며
→ 일방적으로 영토화하려는 시도를 감행.
이 과정은 국제법상 무효로 평가되며,
→ 당시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을사늑약 직전)로, 항의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음.



| 독도의 역사적 배경

- 일제강점기와 독도의 상황

일제강점기와 독도의 상황 (1910~1945)

1. 불법 점령의 연장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했으며,

이 조치는 국제법상 무효였지만, 이후 조선이 국권을 잃으면서 항의조차 불가능해졌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되면서, 독도도 일제의 불법 점령 상태로 편입된 것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나 조선 민중과 학자들은 여전히 독도를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일부 지식인들은 이에 대한 연구와 기록을 남겼다.

| 독도의 역사적 배경

- 일제강점기와 독도의 상황

행정·지리상 조작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후, 독도에 대해 행정구역상 일본 영토로 왜곡·편입하는 조치를 지속했다. 당시 조선총독부 발행 지도나 교과서 등에서도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시하며 역사 왜곡 교육을 시행했다.

그러나 많은 일본 내 지도나 문서에서도 독도가 조선의 부속 섬으로 계속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
→ 당시 일본 내부에서도 일관된 인식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 독도의 역사적 배경

- 일제강점기와 독도의 상황

광복 이후 독도 반환 요구의 근거

일제강점기 동안의 독도 점령은 무력 침략과 강제 병합에 의한 불법 행위였으며,
→ 대한민국은 해방 후 이 점을 근거로 독도의 귀속을 국제적으로 주장합니다.

실제로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에서는

→ "독도는 일본의 행정 관할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 전후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국제적 인식이 뒷받침됨

샌프란시스코 조약. 독도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
→ 1952년 발효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조약

일본이 침략 전쟁 중 점령한 영토와 식민지를 포기하도록 규정하며,
→ 특히 한반도, 대만, 쿠릴열도, 남사할군도 등 영토 처리가 명시됨.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만 되어 있고,
→ 독도는 명시 X

<대한민국의 입장>

대한민국은 조약 작성 과정에서
→ 독도, 울릉도, 제주도 등을 모두 한국 영토로 명시해달라고 요청.

하지만 미국의 정치적 고려로 인해, 최종 본문에는 울릉도는 명시되었고, 독도는 제외되었다.
→ 이는 영토권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약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 “독도는 일본의 행정 권한에서 제외된다”고 명시.

이 조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별도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한 문서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독도는 일본이 포기한 식민지 지배의 일부로, 한국의 영토로 해석할 여지가 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자료제공 :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

| 독도의 역사적 배경

- 이승만라인 선포

01 이승만 라인이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선언하면서
→ 대한민국이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 어업권을 주장하는 선을 동해상에 설정했다.

이 선은 독도를 포함해 대한민국 주변 해역을 보호 구역으로 명확히 설정한 것이며,
→ 사실상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 주권을 국제적으로 선포한 의미를 가진다.

주요 내용

02

이승만 라인은 독도와 울릉도를 대한민국 영해 내로 포함하며,
→ 해당 해역 내의 자원과 어업은 한국이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힘.
이후 일본 어선이나 선박이 라인을 침범하면 나포하거나 퇴거 조치함.
→ 실제로 수백 척의 일본 어선이 나포되기도 함.

| 독도의 역사적 배경

-현재까지의 독도 행정관리

01

공공기관의 실질적 관리

경상북도와 울릉군청은 독도 관리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 환경 정비, 관광 안내, 안전 관리 등을 담당.

해양경찰청은 독도에 독도경비대를 상주시켜 항시 주둔하며,
→ 불법 침입 감시와 독도 해역의 안전을 관리한다.

기상청,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도 관련 시설과 관측소를 운영 중이다.

02

문화·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 독도 전시관, 교육 콘텐츠, 다큐멘터리 등이 개발되었다.

일반인의 관광 방문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 관광객 수는 연간 수만 명에 이른다.

| 독도 영유권 분쟁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근거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국제법상 정당한 영토 편입”이라고 주장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 독도를 시마네현에 공식 편입하면서

→ “무주지(아무 나라의 지배도 받지 않은 땅)를 점유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독도에 상주 인구가 없고, 조선의 실효적 지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합법적으로 점유했다는 입장을 펼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제외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서

→ “일본이 포기할 한반도의 영토로 울릉도, 제주도는 명시되었지만, 독도는 빠져 있다”고 주장.

이 점을 들어, 연합국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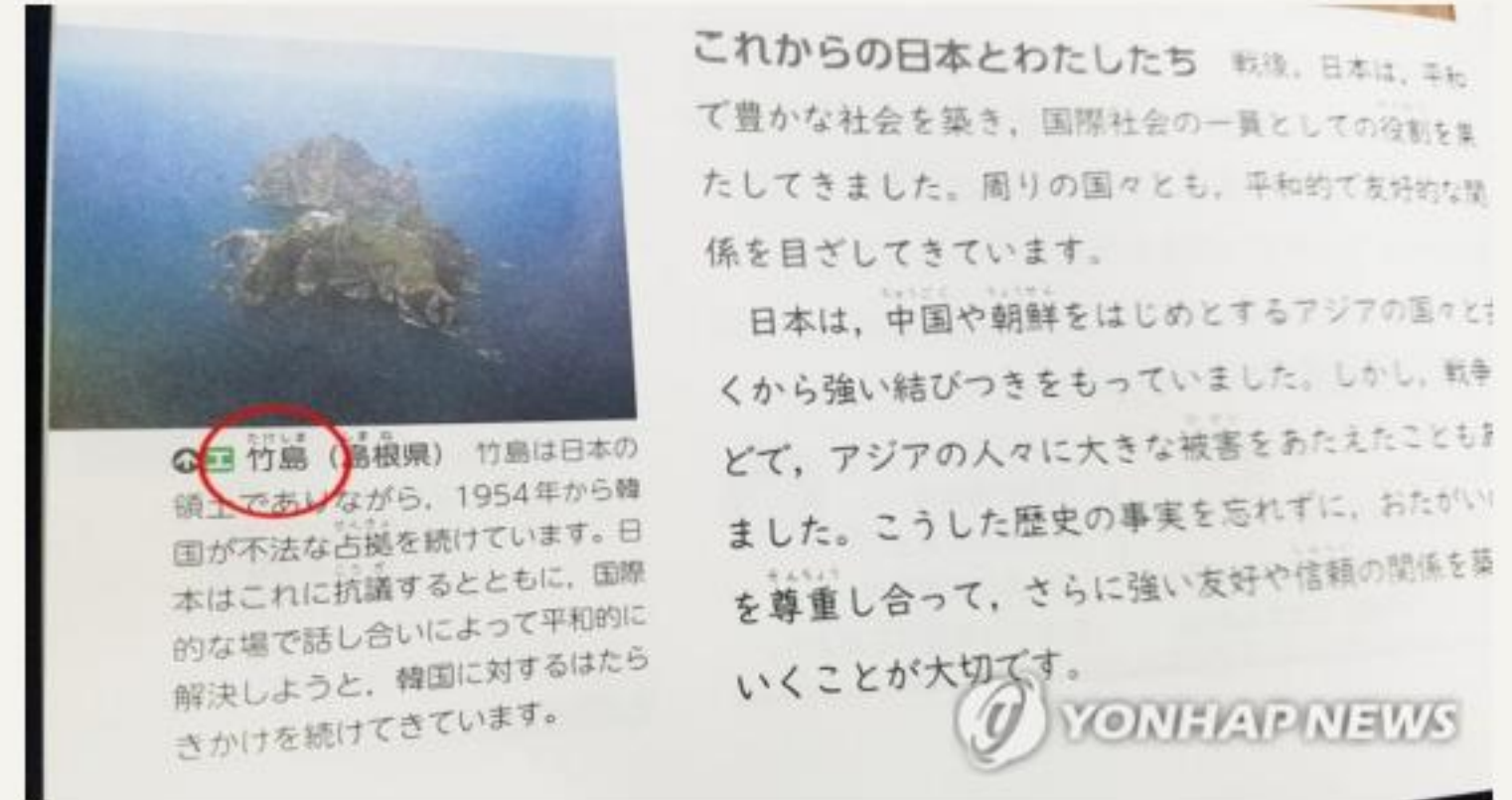
독도 영유권 분쟁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내용

1.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시

일본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서술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교과서에서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
→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침략행위처럼 왜곡하고 있다.



| 독도 영유권 분쟁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내용

2. 역사적 사실 왜곡

1905년 독도 편입을 두고, → “일본이 무주지를 평화롭게 편입했다”고 기술하며,
→ 조선의 영토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합니다.
안용복 사건,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한국 측의 역사적 근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3. 지리적 근거 왜곡

일부 교과서는 독도가 시마네현에 더 가깝고, 일본이 먼저 인식·활용했다고 주장하며
→ 독도가 일본과 지리적으로 더 밀접한 섬이라고 기술하기도 함.
그러나 실제 거리상으로는 독도가 한국 울릉도에 더 가깝고,
→ 조선왕조실록 등에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기록돼 있다.

| 독도 영유권 분쟁

-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근거

01

<역사적 근거: 독도는 예로부터 한국 영토였다>

삼국시대부터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인 독도를 인식하고 통치했다는 기록 존재

대표적 문헌:

삼국사기 - 신라가 우산국을 정복(512년)

- 세종실록지리지 (1454) -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은 날씨가 맑으면 서로 보인다”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 “울진현 동쪽 바다에 있는 두 섬”

- 숙종실록(1696) - 안용복 사건 기록 (독도는 조선 땅이라 항의)

많은 조선시대 고지도(해동지도, 팔도총도 등)에서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

| 독도 영유권 분쟁

-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근거



02

지리적 근거: 한국에 더 가깝고 연속된 지형

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87.4km, 일본 오키 제도에서는 157.5km 거리

→ 한국 울릉도에 더 가까움

울릉도와 함께 동해 해양 생태계와 지형적으로도 연결된 자연적 부속 섬

조선시대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간주되어 관리됨

| 독도 영유권 분쟁

-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근거

3. 국제법적 근거: 일본의 불법 점령은 무효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국제법상 '무효'

조선은 이미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 국권을 잃은 상태(을사늑약 직전)였기 때문에 자국 영토를 지킬 수 없었음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 “독도는 일본의 행정관할 지역에서 제외된다” 명시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된 바 없음

4. 실효적 지배 근거: 지금도 한국이 직접 관리 중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

→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경비대 상주, 주민 거주 기록, 기상 관측소·등대 등 공공시설 운영

이승만 라인 선포(1952)와 이후 정책을 통해

→ 실제적 통치와 관리 행위가 수십 년간 이어짐

| 독도 영유권 분쟁

- 최근 한일관계 속 독도 이슈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방위백서에 나온 지도를 보면 독도 주변이 일본 영해임을 의미하는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됐고, 명칭도 다케시마로 표기됐습니다. 일본의 이런 표기는 2005년 발간된 방위백서 이후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하며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어, 양국 간 신뢰 구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의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독도 문화. 교육적 의미

- 독도 관련 교육의 필요성

- 영토 주권 의식 함양
- 역사 왜곡 대응력 강화
- 국제사회 설득 및 홍보 역량 강화
-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
- 교육적 균형성 확보

| 독도 문화. 교육적 의미

- 독도를 주제로 한 콘텐츠 - 영화

- < 미안하다, 독도야 > 2008

독도에 홀로 살고 있는 김성도 할아버지 부부의 사람 냄새 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와 초등학생부터 80대 노인까지 독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개된다.



| 독도 문화. 교육적 의미

- 독도를 주제로 한 콘텐츠 - 드라마

- <독도수비대>

1989년 8월 15일 밤 9시 50분에 광복절 특집으로

MBC <TV 피처를 통해 방영된 작품으로, 해당 단막극 프로의 제 2작이다.

방송작가 김교식이 1980년에 독도의용수비대를 소재로 쓴 실화소설 <도큐멘타리 독도수비대>를 원작으로 한다.

제작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를 비롯해 울릉군청, 울릉경찰서, 해양경찰대, 철도청,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립중앙박물관 등 각종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동시녹음까지 하는 등의 심혈을 기울였으나, 등장인물들의 설정과 스토리상의 허술함으로 인해 홍순칠 대장의 유족들에게 항의를 받는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

그러나 한일 독도갈등이 심해지던 1996년 광복절 때에 특집드라마로 재편성됐고, 2005년에는 태원엔터테인먼트가 다큐멘터리 <독도>와 묶어 DVD로 냈다.

단, DVD판은 1996년 재방영판을 베이스로 한다.- <독도, 그 섬의 비밀> (2020)

독도의 역사와 자연을 중심으로 한 미스터리 드라마로,

독도의 숨겨진 비밀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 독도 문화. 교육적 의미

- 독도를 주제로 한 콘텐츠 - 음악

-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이 노래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애국가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에 의해 리메이크되어 왔다.

특히 국경일이나 독도의 날에 자주 불려지며,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독도 문화. 교육적 의미

- 독도의 문화재적 가치

1. 역사문화적 가치

고문서, 고지도 등을 통해 독도는 오래전부터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어 왔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대일본전도』 등 여러 사료에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언급된다. 이러한 문헌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입증하는 문화적 유산이다.

2. 문화재 지정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336호 (1982년 지정)

→ '독도 천연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독도 일대의 생태·지질·경관 등을 보호하고 있다.

→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 보전적 가치도 포함된다.

3. 생태문화 유산

독도는 약 80여 종의 식물과 150여 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독도 갯이갈매기 번식지, 조릿대 군락 등은 문화적 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존의 가치가 높다.

4. 현대 문화 속의 독도

독도는 많은 예술작품, 시, 노래, 다큐멘터리, 설치미술 등에 상징적으로 등장한다.

'독도는 우리 땅' 같은 노래나 다채로운 독도 사진전, 문학작품 등은 독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확장시키고 있다.

| 독도 수호 노력과 시민 활동

- 정부 정책

정부의 독도 수호 정책

(1) 독도 관리 및 보호 강화

-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1982년)하여 법적으로 보호
-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운영 → 행정 관리, 환경 정비, 불법 행위 감시
- 독도경비대 상시 주둔 (경찰청 산하) → 불법 침입·상륙 감시 및 대응

(2) 독도 관련 예산 및 인프라 확충

- 독도 헬기장, 방파제, 독도 박물관, 독도전망대 건설
-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의 협업 정책 추진
- 전국 초중고 독도 교육 강화 → 교과서 수록 확대, 체험 프로그램 개발

| 독도 수호 노력과 시민 활동

- 독도지킴이

1. 청소년 독도 지킴이 단체 및 활동

(1) 반크 (VANK)

VANK는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사이버 외교사절단이다.

주요 활동:

- 독도의 국제적 위상과 영토 주권을 알리는 활동을 펼침
- 구글, 지도 서비스에서 독도의 명칭 변경과 정확한 표기를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
- 해외 학교와의 문화교류 통해 독도 교육 실시

| 독도 수호 노력과 시민 활동

- 독도지킴이

2. 독도수호청소년연합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독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단체이다.

주요 활동:

- 독도 수호 서명 운동: 국내외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지지하는 서명을 모은다.
- 독도 탐방 및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직접 독도를 방문하거나, 독도 관련 교육을 받으며 주권 의식을 함양
- 독도 문화 캠페인: 청소년들이 독도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포스터, 영상, 그림 공모전 등을 개최

| 독도 수호 노력과 시민 활동

- NGO 활동

NGO의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정보 제공 및 교육: 국제 사회에 각종 문제를 알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적 역할을 한다.

캠페인 및 로비: 국제 무대에서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며, 정부와 기업에 영향력을 미친다.

인도적 지원: 구호 활동, 긴급 구조 지원,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활동한다.

| 독도 수호 노력과 시민 활동

-독도 기념일 행사

1. 독도의 날 기념식

일시: 매년 10월 25일

주요 내용:

독도 수호 의식: 독도 수호의 결의와 영유권 주장을 확립하는 의미에서 공식 기념식이 열린다.

독도 관련 교육: 학생, 시민들에게 독도의 역사적, 법적 중요성을 알리는 강연이나 공연이 포함된다.

기념 공연: 문화 공연, 음악회, 연극 등이 함께 진행되어 독도에 대한 문화적 관심을 높인다.

독도 관련 메시지 전달: 정부, 외교 관계자들이 독도의 역사적 의미와 수호 의지를 표현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감사합니다.